## 3. 생태문화도시 평가지표 적용결과 분석

## 가. 생태문화도시 적용결과

## 1) 도시의 문화・환경보전(보전) 적용

강동구의 세부지표별 현황분석을 위해 국가통계포털, 강동구 통계 정보조회 시스템, 강동구청, 법제처,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, 서울 통계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자료를 수합하였다.

도시의 문화·환경보전의 자원의 안전성 세부지표별 현황분석에서는 도시녹지 1인당 공원면적(㎡)으로 강동구 공원면적 3,384,600㎡ (2016년 기준)으로 확인되었다. 녹지율은 완충녹지 100,526㎡, 경관녹지 24,132㎡, 연결녹지 32,542㎡로 총 157,200㎡로 확인되었다. 원림의보전(%)은 자연 상태의 숲, 비보림의 보전으로 일반녹지 99개소/101,197㎡ 확인되었다. 도시습지면적은 강동구의 저수지 3,490㎡, 유수지 면적 7개/74,427㎡, 둔촌습지 24,696㎡, 길동습지 58,909㎡로 총 161,522㎡로 확인되었다. 문화시설 인벤토리는 공연장 5개, 영화관 3개, 지역문화복지시설(문화예술회관, 구민회관, 종합복지회관, 구민·다목적 체육시설, 청소년수련시설)로 6개소, 문화보급전수시설 1개소로 총 15개소(2016년 기준)가 확인되었다.

자원의 쾌적성 풍수잇기와 경관잇기에서는 생태통로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 내 생태통로 조성개소(에코코리더, 에코브릿지, 녹도와 실개천 등)를 확인한 결과 1개소로 도출되었으며, 강동구 도시계획에서 녹지연결(Green-network), 바람길 조성(white-network)을 작성하고 계획한 바 있다.

자원의 다양성 현황에서는 생태·문화 탐방로에서 강동그린웨이 1개소, 강풀만화거리 1개소가 확인되었으며, 지역별 랜드마크는 지역의 명소로서 총 56개소가 확인되었다.